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

청년 기피현상 가속… 내년 광주·전남 7000여명 부족
숙련기술 맥 끊기고 불법체류 등 사회문제 야기 우려

"신축현장에 열에 네다섯명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 다음은 나이든 사람이고 젊은이들은 씨도 찾기 어렵죠. 이게 현실입니다."

나주 지역 한 상가 신축현장의 소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기술자는 물론 일 할 젊은 사람도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부 대부분이 50~60대 나이든 이들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이다.

건설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기능인력 고령화로 인한 기술단절, 인력부족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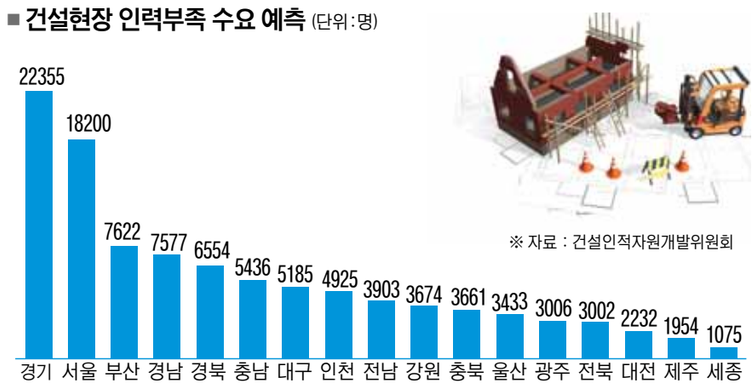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의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160만 6129명으로 예측됐는데 내국인력의 공급은 150만2335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에서만 7000명(광주 3006명, 전남 3903명)가까이, 전국적으론 10만명 가량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예측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이처럼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27만여명이 투입돼 부족인력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등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갈수록 국내 인력이 줄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일용직으로 고용하면 하루 일당도 낮아지고 주말에도 현장을 운영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력 부족현상은 장기적으로 기술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불법체류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건설현장 인력부족 수요 예측 (단위:명)



※ 자료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문가들은 숙련기술의 대가 끊기고 있고 지속될 경우 건설생산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특성화고 연계 도제식 훈련과 적정임금의 법제화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적정임금제로 철근공 시중노임단가인 일당 17만원 이하로 지불하면 처벌하고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주게 되면 굳이 외국인을 쓰지 않고 내국인 기술자를 먼저 쓰게 될 것이며 숙련 기능인력보유자 우대차원에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등급제와 같은 기능의 '기능등급제'를 도입하면 기능공 양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는 "저임금 양산 등 불균형과 불법이 만연한 건설시장 풍토를 개선해 젊은이들이 건설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전, 농·어촌 복지시설·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2017년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식을 가졌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50억원을 출연하고,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전국의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취약계층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태양광 발전소 및 태양광 패널 지원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이를통해 농어촌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건립해 주고 전력판매수익 지원을 통해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무상설치해서 전기요금절감을 지원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착 못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광주상의 206개 기업 조사
54% "원하지만 시행 어려워"
인력·인건비 부담 등 애로

광주지역 대다수 기업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업종별 특성상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주지역 소재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단축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와 유연근무제에 대해 54%가 활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활용현황' 조사에서는 92.2%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제도 도입의사가 없다(63.9%)'가 가장 많았고, '시차출근제(32.0%)' 도입 등이 뒤를 이었다.

재택근무·원격근무제 운영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99.0%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향후 제도 도입시 고려해 볼 만한 제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제도 도입 의사가 없다(91.7%)'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현황'조사에서는 83.0%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36.1%)', '적합한 업무가 없어서(34.5%)', '업무 몰입도가 떨어져서(1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인력을 추가 고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해결 할 수 있어서(44.4%)', '인건비 부담 때문에(27.8%)', '전환기간 동안만 기간제로 일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16.7%)' 순으로 응답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금호타이어 김종호 회장 체제 출범

임시주총 한용성 사장 선임안 가결… 조직개편 본격화

금호타이어가 김종호 신임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금호그룹과의 계열분리,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조직개편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종호 회장과 한용성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이날 임시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각각 회장(대표이사)과 사장에 최종 낙점됐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금호타이어 실무진들이 여의도와 마포 일대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정상화와 김종호 회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지난달 14일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2명을 신규선임하고 전무 2명, 상무 6명 등 8명을 승진시켰다. 기존 임원 9명(전무 2명, 상무 7명)의 경우 퇴임시키고 자문으로 위촉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달 이뤄진 임원인사의 경우 금호 색채를 지우기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출신 보다는 기존 금호타이어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 두각을 드러냈다"며 "금호타이어는 경영정상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지회,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등은 지난 1일 광주시 광산구 KDB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며 구조조정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새 대표이사에 최민도 본점장

(주)광주신세계 신임 대표이사에 최민도(54·사진) 신세계 본점장이 내정됐다.

대구 출신인 최 내정자는 성균관대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1996년 신세계그룹에 입사했다.

신세계 본점 인사과장으로 시작해 마케팅 기획업무, 백화점 신규개발담당을 맡았다. 신세계 그룹 내부에서는 마케팅과 신규사업 분야 핵심인재로 알려져 있다.

최 내정자는 광주신세계 총괄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오는 2018년 3월 열릴 광주신세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식 대표이사직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취임했던 임훈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센텀시티점장으로 취임한다. /박기웅기자 pboxer@

도시가스·신선식품·돼지고기값 하락

광주·전남 11월 소비자물가

지난 1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는 하락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2.90으로 전월 대비 0.6% 하락했고, 전년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하락, 전년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전월 대비 자동차용 LPG, 경유, 휘발유, 세탁세제, 고등어 등이 상승했고 도시가스, 배추, 돼지고기, 상추 등이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5.4%, 전년동월 대비는 2.1% 각각 하락했다.

전월 대비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음식, 숙박, 교통, 교육 등은 상승했고 식료품, 오락, 문화 부문은 하락했다.

전남지역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92로 전월 대비 0.6% 하락했고 전년동월 대비는 1.6%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하락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1.6% 올랐다.

전월 대비 자동차용 LPG, 경유, 휘발유, 쌀, 쇠고기 등이 상승했고 배추, 도시가스, 돼지고기, 무 등이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6.5%, 전년동월 대비 0.7% 각각 하락했다.

전월 대비 음식, 숙박, 교통은 상승했고 식료품, 오락, 문화 부문은 하락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78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4	15	16	17	38	45	3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603,964,625	4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85,258,605	36
3	5개 숫자일치	1,642,221	1,869
4	4개 숫자일치	50,000	90,899
5	3개 숫자일치	5,000	1,532,640